

세瓦一點을 各各 同一層位에서 發見하였다. 또한 浮屠의 相輪으로 推定되는 八角形石材中央에 深一寸五分의 穿孔) 一點을 發見하였다. 前者『트렌치』에서는 注目된만한 遺構는 發見되지 않고 이곳으로 溪川이 흘러가던 溪川址가 發見되었음이 『트렌치』를 土築台下까지 掘下하여 骨壺片과 土器及磁器片과 古瓦片 多數가 出土되었다. (그중 암막새瓦片 一點과 羅代부터 李朝에 屬하는 암막새古瓦片 四種을 採取하였다)

二、石窟背後에서 噴出되는 물을 處理하기 위하여 『동』의 西南方과 北側으로 깊은 新排水路를 設置中이며 『동』外郭에 防水保溫用으로 使用된 硯硯으로 硯硯 『동』을 除去하고 屋蓋工事を 五月十日부터 着工할 豫定이고 窟內의 스텀 保溫裝置는 撤去하였다.

三、參觀外國人은 如左

五月三日 新嘉坡大學 中文部主任 賀光中教授來訪

五月四日 駐韓美大使 버-커夫妻와 二名來訪

五月五日 白耳義의 HUBERT DURT氏 來訪(現在 日本京都大學 人文科學

研究所에서 留學中인 佛敎學者)

### 在歐 崔淳雨氏 通信

獨逸展示를 끝내고 四月下旬 奧地利로 向한 同氏로부터 本誌幹事 鄭永鎬氏에게 繪業書(展示中인 謙齊의 仁王變色圖)를 보내왔는데 글씨 眞은 다음과 같다. 「오늘 보내주신 考古美術 展 받았습니다. 手苦하신 작위가 歷歷해서 感謝不已입니다. 오랫동안 原稿 보내지 못한 것 부끄럽게 생각하며 서울에 돌아 가면 그동안 못했던 문까지 합해서 硯硯을 보낼 생각입니다. 潤松追悼號를 이곳에서 어떻게 받게 될지는 새로운 硯硯이 마음은 어떻게 해줍니다. 그동안 나온 考古美術과 刊行物을 저의 몫으로 모아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四月 十六日」

### ◎ 大學博物館協會刊 「古文化」

第一輯의 論文(五月十日 發行)

第三卷 第五號 通卷二十二號

金斗鍾.. 高麗板本에 對하여

金良善.. 再考를 要하는 磨製石劍의 形式分類와 祖型考定の 問題

金廷學.. 廣州明逸里住居址發掘略報告

資料

蔣奎禧.. 高麗白磁 丁仲煥.. 大安七年銘高麗蔡口에 對하여

尹容鎮.. 法水寺址와 遺物

### ◎ 慶大博物館刊 「若木古墳調査報告」(報文二一頁 圖版二四葉)

一九六〇年九月에 있었던 慶北 漆谷郡 若木面 福星洞 所在古墳(一基(大甕塚)의 發掘報告書로서 執筆은 同館의 崔鍾完 尹容鎮 兩氏

### 宋板別本寶篋印陀羅尼經

— 第三卷 第六號 通卷二十三號 —

趙 明 基

(一行十字 一字約五mm 平方의 細字 高六·七cm 全長二一〇cm 卷本一軸 宋太祖八年刊)

南方吳越은 杭州에 都邑하여 晚唐으로부터 約八十有餘年 동안 錢氏一族의 諸王相이 繼承하여 治世를 하고 모두 佛敎를 信奉하여 造寺建塔에 盡力하였다. 特히 忠懿王錢俶은 五代에 있어서 第一의 佛敎篤信者라고 하는 바이다. 王의 事蹟中 가장 高名한 것은 阿育王의 故事에 模倣하여 八萬四千의 金銅塔을 造成하여 領內各地에 安置하고 또 其他塔塔等도 建立하여 그들 塔中에 「寶篋印陀羅尼經」을 納入奉安하였다. 王이 建立한 佛寺는 極히 많아서 近世佛敎의 中心地가 되는 杭州西湖附近의 大小數百의 寺院과 塔塔는 거의 이 時代에 創建한 것이며 그중 雷峰塔같은 것은 多層 塔塔인 바 宏壯한 것이다. 그런데 民國十七年頃(一九二八) 杭州에 있는 塔塔이 崩壞되어 그 塔의 塔中에서 이 經이 出土한 것이다.



그리고 錢假王이 佛學을 崇尚하여 永嘉集을 讀誦하다가 「同除四住」라는 言句를 解得하지 못하고 德韶 國師에게 質疑하니 國師는 다시 義寂大師에게 問議하라 하기에 大師를 불러 물었더니 答하기를 이것은 天臺智者大師의 法華玄義에 있는 語句이나 中國本土에는 모두 散失되고 高麗國에 많은 典籍이 保存되어 있으니 이것을 求得함이 어찌하냐 라고 하였다.

그때의 中國은 天寶末年 安祿山 史思明의 兵亂과 唐武宗의 會昌破佛(八四五)과 周世宗의 破佛殿寺(九五五) 등의 法難으로 典籍을 焚燒하고 殿塔을 破壞하여 殘編斷簡조차 求하기가 어려워 實로 暗黑時代가 되었다. 그러므로

王은 義寂大師의 上申에 依하여 欣然히 五十種의 寶物을 마련하여 使者를 高麗에 派送하니 麗王光宗은 勅命으로 諦觀法師로 하여금 天臺三大部分와 智論疏 仁王疏 華嚴骨目 等 많은 典籍을 携帶하고 光宗十二年(九六一)에 渡宋하여 十餘年間 獻身勞勩함에 天臺宗을 爲始하여 佛教全般을 復興하여 大陸의 佛日을 再輝하게 하였다.

諦觀法師는 天臺宗의 中心地인 螺溪에 十年을 止宿하며 講經에 힘쓰다가 一日 忽然히 端坐入寂하였다. 그後 法師의 居室에 遺置한 篋中에 서 放光의 奇瑞가 있기에 그것을 열어보니 篋底에 天臺四教儀라는 法師의 著書가 秘藏되어 있었다. 이것은 全佛敎의 要經을 五時로 敎判하고 化儀의 四敎과 化法의 四敎로 分하여 各敎의 敎理、斷惑의 順序를 明示하여 天臺宗의 大綱을 至極히 簡易하게 明示하여 至極히 容易하게 理解하도록

專論述하여 있다. 그러므로 이것을 今日에 이르도록 天臺宗의 寶典으로 삼는 바이다. 이때의 再興으로서 今日의 中國佛敎文化가 있게 된 것과 또 이 陀羅尼經도 高麗法師 諦觀의 陰德으로 우리가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實로 感慨無量한 것이 라고 아니할 수 없다.

寶篋印陀羅尼經은 或은 寶篋印心呪經이라고도 하고 具名으로는 一切心如來秘密全身舍利寶篋印陀羅尼經이니 唐의 不空譯이다. 그 內容은 四十句로 된 寶篋印陀羅尼의 功德을 說하였으니 이 呪을 誦讀하면 地獄에 떨어진 사람도 極樂에 가게 되고 病者는 快愈하여 壽命을 延長하게 하고 貧窮한 사람은 無量의 福德을 받게 된다고 하였다. 現在까지도 眞言宗 天臺宗에서는 三大陀羅尼의 一로서 日常이것을 誦持하고 있다. 經의 初頭에 變像圖가 있고 左記가 있다.

天下兵馬大元帥吳越國王錢假造此經八萬四千卷捨入西關  
 塔塔永充供養乙亥八月日記  
 錢假王乙亥는 吳越開寶八年 西紀九七五年이니 距今 九百八十八年前이다.

### 洪武二十三年의 馬符

秦弘燮

昌德宮에 明朝의 馬符가 所藏되어 있다. 우리나라 馬牌에 該當하는 것으로 驛院에서 馬匹을 徵發할 수 있는 符標이다. 아마도 明朝에서 發行되어 우리나라에서도 이 符標에 依하여 馬匹이 徵發되었던 듯하다.

符標는 織物로서 長六二·七cm 幅三三·五cm며 그 뒤에 全長一四一·五cm의 花文綾絹으로 背帖하여 篋子같이 만들었다. 右側에는 主文이 있고 中央에 馬一匹이 있고 左側에 年月日이 있다. 主文은 如左하다.

皇帝聖旨公差人員經過驛分持此符驗方許